

국립공원 찾은 외국인 205만 명으로 집계... 통신데이터 기반 집계로 신뢰성 확보

- 지난해(2025년) 국립공원 찾은 외국인 205만 명, 이 중 113만 명은 방한 관광객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92만 명 방문
- 방한 관광객 한라산 27만 명, 다도해해상 14만 명, 태안해안 13만 명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을 방문한 외국인이 총 205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립공원을 방문한 외국인 탐방객 205만 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방한 관광객 113만 명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92만 명으로 구성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국립공원은 한라산국립공원으로 27만 명이 다녀갔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자연 경관 체험을 주요 일정으로 포함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 다도해해상 14만 명, 태안해안 13만 명, 한려해상 13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해와 서해안 일대의 섬과 해안 절경을 찾는 수요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을 방문한 방한 관광객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인은 25만 명으로 21.9%를 차지했으며, 대만 13만 명, 필리핀 9만 명, 인도네시아 8만 명, 미국 6만 명, 일본 5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중화권과 동남아 국가 방문객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며 최근 방한 관광 회복 흐름과 맞물려 자연경관 체험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결과로 해석된다.

계절적으로는 가을철 방문이 가장 활발했다. 단풍과 온화한 기후가 맞물리는 시기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고, 봄과 여름이 뒤를 이었으며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외국인 방문 통계는 해외 입국 외국인의 통신 로밍 데이터를 활용해 국립공원 경계 내 체류 인구를 추정한 결과다. 기존 현장 육안 계수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신 데이터 기반 집계 체계로 전환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 규모와 이동 특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증가하는 외국인 탐방 수요에 대응해 외국인 대상 탐방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여행 계획 단계에서 국립공원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유튜브 영문 영상(쇼츠)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연계 관광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등산화 및 등산스틱 등이 포함된 안전배낭을 대여해 주고 인공지능(AI)기반으로 다국어를 안내한다. 아울러 외국인 대상 레인저(안전 중심의 내부 직원 안내) 탐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외국인도 보다 편리하게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국립공원을 찾았다는 것은 자연경관이 한국 관광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라며, “이번 통신 로밍 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국인 방문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외국인 맞춤형 안내와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공원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5년 외국인 탐방객 수.
 2. 국적별 방한 외국인 관광객.
 3. 외국인 대상 탐방서비스 계획.
 4. 관련 사진. 끝.

담당 부서	국립공원공단 탐방시설처	책임자	부 장	이의철 (033-769-9621)
		담당자	차 장	강병선 (033-769-9622)

순번	공 원 명	합계	외국인 탐방객수		비 고
			방한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계	2,050,897	1,131,483	919,414	
1	한라산	303,367	271,443	31,924	방한 관광객 1위
2	다도해해상	210,121	141,190	68,931	방한 관광객 2위
3	태안해안	272,587	134,562	138,025	방한 관광객 3위
4	한려해상	264,329	130,860	133,469	
5	설악산	169,284	111,731	57,553	
6	경 주	150,054	102,166	47,888	
7	북한산	135,830	57,315	78,515	
8	팔공산	59,536	21,964	37,572	
9	속리산	49,244	18,124	31,120	
10	오대산	33,974	16,256	17,718	
11	가야산	27,534	15,264	12,270	
12	변산반도	75,177	13,729	61,448	
13	덕유산	45,961	13,228	32,733	
14	내장산	44,780	13,183	31,597	
15	지리산	36,023	11,146	24,877	
16	치악산	25,512	9,359	16,153	
17	무등산	25,531	9,322	16,209	
18	계룡산	35,579	8,714	26,865	
19	소백산	19,718	8,161	11,557	
20	태백산	15,669	7,126	8,543	
21	월악산	23,724	6,589	17,135	
22	월출산	15,912	6,073	9,839	
23	주왕산	11,451	3,978	7,473	

순위	국적	방한 관광객(명)	점유율
합계		1,131,483	100.0%
1	중국	248,345	21.9%
2	대만	133,157	11.8%
3	필리핀	92,931	8.2%
4	인도네시아	76,815	6.8%
5	미국	63,785	5.6%
6	일본	50,733	4.5%
7	홍콩	39,629	3.5%
8	베트남	38,408	3.4%
9	싱가포르	36,214	3.2%
10	독일	26,371	2.3%
11	인도	26,153	2.3%
12	미얀마	26,045	2.3%
13	태국	26,026	2.3%
14	말레이시아	25,196	2.2%
15	러시아	17,263	1.5%
16	프랑스	16,905	1.5%
17	캐나다	14,383	1.3%
18	이탈리아	13,678	1.2%
19	영국	12,599	1.1%
20	오스트레일리아	12,299	1.1%
기타 국가 합계		134,548	11.9%

- **홍보** 여행 계획 단계에서 K-국립공원 방문을 유도하는 홍보 추진
 - (SNS 홍보) 외국인이 쉽고 정확하게 국립공원 탐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널 운영
 - 외국인 탐방객 전용 SNS 채널 운영 및 탐방안내 콘텐츠 제작·게시
 - (정확한 정보 제공) 외국인이 쉽고 정확하게 국립공원 탐방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영문 쇼츠 게시
 - (현장 이벤트) 외국인 탐방객 대상「등산 후기 SNS 이벤트」시행
 - ※ 이벤트 참가자에게 '국립공원 반달이 굿즈' 제공
 - (관광명소) 외국인 인기 관광지 내「국립공원 사진전」운영
- **협력** 한국관광공사 협력 국립공원 여행상품 확대
 - 전문여행사에서 국립공원 트레킹 여행상품을 관광플랫폼(트립닷컴, 클룩 등) 등록하여 국립공원 방문 인증 이벤트 운영
- **서비스** 외국인도 쉽게 즐기는 K-국립공원 글로벌 탐방환경 조성
 - (등산장비 대여) 외국인 탐방객 대상 풀옵션 안전배낭* 제공
 - * 등산화, 등산스틱, 무릎보호대, 아이젠, 구급약품 등
 - (비대면서비스) AI 기술 활용 다국어 안내서비스 도입(AI 동시통역) 및 영문 챗봇 프로그램 제공
- **체험** 레인저와 함께하는 외국인 탐방프로그램 운영
 - (방한외국인) K-등산 인기 국립공원 중심 지역 연계 탐방코스 개발
 - (국내거주외국인) 거주유형, 방문목적 등을 고려 맞춤 프로그램 운영



외국인 탐방객 대상 탐방프로그램 진행(1)



외국인 탐방객 대상 탐방프로그램 진행(2)



외국인 탐방객 대상 탐방프로그램 진행(3)



외국인 탐방객 대상 탐방프로그램 진행(4)



외국인 탐방객 대상 탐방프로그램 진행(5)



북한산국립공원 백운대 탐방객 현황사진